

산돌

| 퍼낸이,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발에 감추인 보화	11
가족소식	12
가족모임스토리	14
예가소식	16

“예가교회, 새누리교회, 고맙습니다”

처음 예가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때에, 나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빈들을 떠도는 사람 같았다. 그 때 내가 찾고 있던 것은 ‘교회’였다. 지천에 깔린 간판들이 교회간판이고, 교회당 십자가였는데도, 나는 교회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었다. 내게 ‘교회’라는 것은 17세기까지 생존했다는 도도새나 동화 속의 무지개 물고기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나는 성경이 전해주는 그 교회를 만나고 싶었다. 그 안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예가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그 무모한 탐험에 결코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 예가교회를 통해 성경이 전하는 교회를 조금씩 맛보고 있다.

분명, 나는 예가교회의 지체이지만, 예가교회는 예가교회 교우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다. 얼핏 보면,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 같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해서, 받고 누리는 것은 수십 배 수백 배라는 느낌이다.

예가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구현하는데 힘써 왔다. 예가교회가 집중해 온 일들은 거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꿈꾸며, 진행한 일들이다. 교역자들은 일년에 세 번 정도 기획모임을 다녀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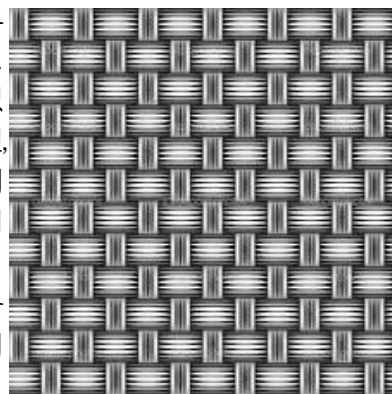
협의한다. 가족인도자들의 협의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모임이다. 때로는 교역자들과 교우들이 한 팀이 되어 모임을 꾸리기도 하는데, 그 모임들 역시 한 사람의 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모임이 팀을 꾸리기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서 ‘이웃’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사랑의 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가교회는 그 말씀을 직접 몸으로 누리며, 여기까지 왔다. 교회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한 사람씩이다. 교회는 다수를 집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길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예가교회는 우리와 같은 삶을 선물로 받을 교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희망하고, 기도해왔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예외없이 가장 좋은 선물로 돌아왔는데, ‘전주새누리교회’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고, 격려였다. 새누리교회는 우리의 발걸음을 수십 배, 수백 배 가볍고 유쾌하게 해주었다.

예가교회여, 새누리교회여,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가교회, 새누리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신 교회입니다.





사무엘하	23 : 13 - 17
야고보서	4 : 1 - 10
마태복음서	10 : 34 - 39

■ 오늘 낭독한 사무엘기하 23장은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은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면, 자기의 통치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였다고 주장합니다. 나쁜 후회 없이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튼튼하

게 되는데 공을 세운, 그의 삼십인특 별부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세 명의 용사가 오늘 낭독한 본문에 소개된 인물들인데, 그 이름은 요셉과 엘르아살과 삼마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운 용사이며, 혼자서 수백 명씩 살육한 용맹한 전사들입니다. 이후에 사무엘기하의 다윗 이야기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무엘기하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용사였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세운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지막 장인 인구조사는 그 주된 목적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를 마친 뒤에,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는데, 솔로몬은 막대한 세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왕정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웅장한 왕궁을 지었고, 그 중의 일부로 성전도 건설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곳곳에 이방신들을 위한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의 이방인 부인들이 천 명쯤 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부인들을 위해서 천 개 정도의 이방신전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수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한 일은 이후에 왕들과 귀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가난과 죽음으로 내모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건설한 이스라엘 왕국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작지만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나라였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팔레스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뛰

어난 통치자와 전쟁용사들이 배출되어서 이스라엘을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로 인도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토라도 있고, 예언서도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나, 구약성경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 1순위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진 다윗의 별도, 그들의 1순위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 많은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강단의 설교도 다윗과 솔로몬의 번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어디든 웅만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은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의 덕을 본 것입니다. 보통 건축헌금을 모으는 설교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은 인기주제였으니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싸움을 잘했고, 가장 머리가 좋았던 두 왕, 힘과 매력, 거기에 재력까지 겸비했던 두 왕이 관심의 1순위입니다. 토라는 가장 권위가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의외로 다윗 솔로몬 다음입니다. 토라는 일종의 생활지침같은 것으로 전략해 있고,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찬송가 표지 안쪽에 있는 '십계명'이라 불리는 열 개의 계명이 중심인 줄 압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가톨릭이나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란 말이 성경을 읽는 동네에서는 권위가 가장 크니까, '직업 십계명', '부부 십계명', '자녀 십계명' 같은 제목을 붙여서 가르친 교회들도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의 계명만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토라도 그렇지만, 예언서는 더더욱 변방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예언서는 토라처럼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도 거의 없으니까, 읽는 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시편 같은 일반문서의 경우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 즐겨 읽는 기도이자 찬양인데, 온통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름을 달고 있으니, 다윗과 솔로몬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두 개의 세계를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늘상 현실이라 부르는 세계이고, 이 세계는 정치, 경제, 법, 제도 등의 이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현실이 아닌 세계로 쫓겨났는데, 그것의 이름을 '종교'라고 명명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가 아주 현실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종교가 강력한 현실이었습니다. 종교가 권력을 창출하고, 돈과 매력을 끌어 모으는 지혜였을 때는 종교가 곧 힘이고, 재력이고, 매력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확실히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부담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담고 있기는 한데, 이방나라들처럼 국가나 왕정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성경을 한동안 봉인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유다의 거의 마지막 대의 왕인 요시아 때, 즉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까지 성경의 기록물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봉인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하에 다른 말씀의 전통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역대기서는 왕정사가 혹은 왕정 예언자들의 작품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게 매우 호의적이며, 그들의 통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폭적 지지와 협력 속에서 수행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일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낭독한 마태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힘에 의한 평화의 방식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 제국을 세우고, 튼튼하게 할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국가나 제국을 분열시키고, 해체시키고, 무력화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의 지위까지 얻은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국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 정상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나 바울 서신을 가지고는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낭독한 야고보서는 인용하기조차 불편합니다. 부자들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인데, 교회의 일원으로서 퍼주고 대접하여 자기를 낮추어 사는 부자들은 감사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난 2천 년 동안 가장 인용이 안된 서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몇몇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과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덴마크의 교육에 관한 강연인데,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룬트비라는 한 루터교 목사에 의해서 기독교적 이념하에 정책들을 바꾸었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풍요롭고

모든 면에서 복지적이고 선진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덴마크가 성경적 가르침이 들어가서 세워진 기독교 낙원인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덴마크에 주목하는 까닭은, 덴마크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덴마크는 그들의 부를 잘 활용하여, 교육과 의료와 각종 분야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재력만 있는 건이 아니라, 좋은 머리까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연에서 강사는 덴마크의 시민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 자존감은 재력에서 비롯된 자존감입니다. 나는 덴마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돈, 권력, 매력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을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면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지방의 작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할지를 고민하지만, 지방의 작은 동네 대학 학생들은 어떻게 좁은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을지를 고민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현실로 인정하는 세계에서 먼저 벗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경쟁하고 다투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속에서, '비교하지 말라'는 교훈은 오히려 승자들이 패자들에게 던지는 조롱 섞인 훈계밖에 안 됩니다.

가끔 유명한 스님들이 청년특강을 하는 것을 보면, 다들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려면 출가를 해야 합니다. 속세를 더 이상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떠나서 새로운 현실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자가 되는 길입니다. 스님들에게는 그게 가능한 일이겠지만, 출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인 격언입니다.

요즘 대학가나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강연장에 가보면, 소위 성공한 젊은 경영인들이 나와서 강연을 합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사에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경영진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은 '자존감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힐링이 한물갔고,

나는 여러분이 주기도로,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사는 현실을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기도로,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사는 현실을 사시라고 전합니다. 그 현실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통크고 당당하고,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이슈입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에게 힐링은 때려 치우라는 강연이 인기입니다. 그만 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는 게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위로하면 기운만 더 빠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떤 고생도 즐겨야 하고, 밑바닥에서도 잘 살아남는 젊은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정페이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은 젊은이들보다 기업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덴마크 이야기도 자존감이 이슈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존감, 맞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가 어떤 세계를 현실로 삼고 사는가와 직결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공모나 한 것처럼, 거의 동일한 세계를 현실로 규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에 들어가면서,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어떤 이념이건, 어떤 종교건 간에, 돈, 권력, 매력에 있어서 탁월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주목을 끌고, 인기를 얻습니다.

토라나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생명이 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기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가 살 맛 나는 사람은 그 삶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에게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현실에 너무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세상이 주장하는 현실에 동조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동조되는 것입니다.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세상이 규정한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현실을 누리자고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살맛을 느끼니까? 이 세상의 교훈 속에서 살맛을 느끼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살맛을 느끼십니까?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살맛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전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고 웃음을 버리고 근심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빨리 살맛나는 쪽으로 넘어오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 어정쩡한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말입니다.

예가교회는 주기로 기도하고, 호흡기도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 살 맛 나고, 행복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품고 삽니다. 소원이 곧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그 사람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로, 어떤 현실을 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주기로,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사는 현실을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기로,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사는 현실을 사시라고 전합니다. 그 현실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통크고 당당하고,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눈이라는 것은 가시광선 범위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 범위를 벗어난 세계를 못 봅니다. 빛이 없어도 못 봅니다. 너무 커도 못보고,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그리고, 그 제

한된 환경에서 눈은 실상 내가 '이게 현실이야!' 라고 선택한 것들 위주로만 취사선택해서 보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세계의 창이나 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내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기도를 가지고 살 것입니까?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세계 속에서 살 것입니까?

예가교회가 지금까지 해 온 일들은 세상에 없지만 우리가 현실로 누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 가족모임, 생활공동체 등등 우리만의 현실로 구현하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소원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고, 통로이며, 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코스를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소원하는 현실들이 하나씩 구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꼭 하시고, 멈추지 마시고, 특히, 주기도를 내용으로 하는 매일기도와 호흡기도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즐기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주기도 안에 있고, 주기도는 온 세상을 사랑으로 뒤덮는 기도이며,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멈추면, 다른 기도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실도 내가 택한 기도를 따라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 합시다. 소식지 펼쳐놓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으면 주기도를 천천히 외우십시오. 주기도가 나의 소원이고, 나를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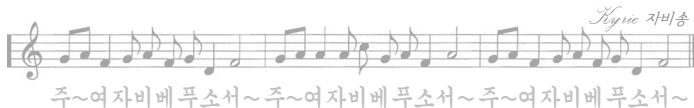
화음 김진승: 신나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화음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불꽃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푸른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유유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큰열매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바다님에게 과일을 선물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바다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빌립님에게 감사문자를 보내고 김치를 선물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광야님에게 음식을 선물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광야님과 즐거운 사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 석재호: 보라님에게 안부의 인사와 성경구절을 보내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모퉁이돌님을 좋아하기 위해, 문자와 선물로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마리아님에게 반찬선물을 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달빛님에게 기도 후 말씀과 감사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섬김과 격려주간 준비를 잘해서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초록님에게 집들이 선물을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뿌리님과 사귄 시간을 준비해서 갖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생명님과 즐거운 사귄 시간을 만들고 추수감사 음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들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섬김과 격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진주님과 사귄 시간을 가지고 감사편지를 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초록님에게 선물을 하고 가족모임 준비로 만두를 준비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다이어트음식을 준비해서 늘빛님과 만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온유님과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선물을 준비해서 맑은님을 만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나무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샘물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샤론님을 만나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샘물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일대일 만남 짝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어울님과 일대일 만남 양식에 맞춰 이메일로 사귀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소망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은석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에스더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요한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요한님에게 순대국밥을 대접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등대님과 카톡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등대님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창조절 열한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26편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던가!
주님,
네 겹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첫 기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을 주셨으니,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지냈던 어제는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늘에 집중하여, 사랑하라 하신 삶을 누리게 하소서. 내 것을 퍼주는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마가복음서 사도행전
13-14 / 15-16 / 1-2
3-4 / 5-6 / 7-8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차 잘못된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교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126편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합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던가!
주님,
네 겹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첫 기도

주님,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70 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32)

이제 누가복음서를 살펴보자. 누가복음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배경이 산상이 아니라 평지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만 따로 세워두고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은 스케일을 크게 키우고 있다. 누가복음의 경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자로 임명한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는데, 평지에는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전한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눅6:17)

예수님이 평지에서 가르침을 전할 때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선 열 두 제자보다 더 큰 규모의 제자단이 등장한다. 큰 무리를 이룬 제자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방지역을 포함한 사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

모여든 큰 무리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그

들이 모여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19)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눅6:18-19)

평지로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에 대해서는 18절에서 19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까닭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 즉 더러운 영에게서 해방되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병에서 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모여든 사람들은 허다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다.

6장 20절 이후에는 마태복음과 달리 4복 4화가 선포된다. 즉, 네 가지 복에 대한 선언과 네 가지 화에 대한 선언이 있다. 네 가지 복에 대해서는 그 수신인이 제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네 가지 화에 대해서는 제자들보다는 그 밖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자들 외에 모여든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인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방으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제자들 외에 다른 큰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까닭은, 네 가지 화에 대한 선언과 짝을 이루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라며, 수신인에 대한 언급을 반복한다. 아마도, 이는 제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네 가지 복은 제자들에게 선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가지 화는 대상이 평지에 모여든 무리 전체로 보인다. 그리고, 다시 27절에서 대상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데, 그 대상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다. 아마도,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 ‘내 말을 듣는다’는 표현은 물리적인 귀로 음성신호를 감지하는 방식의 청취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몸으로 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

27절에서 34절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들이 요약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6장 35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눅6:35)

누가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 대해 전하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삶’이 바로 더 없이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마태복음은 앞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길에 대해서 5장 9절에서 선언한 바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마5:9)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그 핵심에 ‘용서’가 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의 앞 부분, 즉 주기도가 전개되는 6장 이전의 가르침을 가지고 주요한 가르침을 형성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하는데, 특히, 5장 9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자녀들’(아들들)이라 부른다. 그리고, 9절의 결구는, 5장 43에서 48절인데, 그 내용은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46]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

이 무엇이나?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마5:43-48)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레위기 법전이 전하는 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해지는 길이며,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누가복음은 바로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앞세워서 평지수훈을 전하고 있다.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에 이르는 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내용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이후의 이야기, 즉 9장에서 17장 사이의 이야기들이 누가의 방식대로 편집되어 있고, 누가복음 고유의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서야 비로소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즉,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하자면, 마태복음 5장은 누가복음 6장과 연결되고, 마태복음 6장은 누가복음 11장과 연결된다.

그런데, 누가복음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기도’는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마태복음의 주기도에서는 ‘용서’가 중심에 있었다. 반면에, 누가복음서 11장에서는 ‘성령’이 중심에 들어온다. 마태복음이 ‘용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평화’를 주요한 주제로 다룬다. 주기도의 경우에도 ‘용서’보다는 ‘성령’으로 강조가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용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용서의 주제를 다루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다. 누가복음 15장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야

기이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용서’이다. 특히, 누가복음은 용서의 문제를 ‘돈문제’로 구체화하여 다루고 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외에도,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 문제는 확실히 돈문제이다. 이 가르침은 ‘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못 갚는 일이 생기면 탕감해 주어라’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진전된 이야기이다. 누가복음 6장 35절은 애초부터 도로 받을 일이나 탕감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냥 주라는 가르침이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받을 생각으로 꾸어주는 존재는 물론 아니거니와, 못 받게 되면 탕감해 주는 정도도 넘어서서, 아예 받을 생각을 갖지 않고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용서’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다만 15장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용서 역시 돈문제와 결부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서 평화를 강조하는데, 그 역시 돈문제를 예외 없이 언급하고 있고, 용서의 주제에 대해서도 돈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누가복음서는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구체성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을 돈문제와 연결시켜서 다루고 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편안하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관계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용서, 곧 '빛의 탕감'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한 다음의 일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놓여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과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로 인해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용서 문제를 전혀 다른 주제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즉, 아버지는 애초부터 아들에게 도로 받을 요량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빈털털이가 되어서 되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 기쁘게 맞이하였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놓여있던 돈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 기쁘게 맞이하는 것으로 해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와 같은 분이려면, 아들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이겠는가? 누가복음 6장 35절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전제로 깔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도로 받을 요량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받을 생각없이 퍼주시는 것들이다. 이는 용서의 선취를 가리키는 메시지이다. '용서의 선취'는 마태복음의 '용서'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하고 강화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가? 용서의 선취를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 즉, 받을 요량으로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것이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이야말로 평화의 길임을 전하고 있다.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79]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눅1:78-79)

예수님이 전한 평화는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길과는 다르다. 누가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만이 평화의 길이라 전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평화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다.

"[41]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42]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눅19:41-42)

세상은 '평화'를 빌미로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허다한 목숨을 짓밟았다. 로마제국 이후로 국가들의 종교로 군림한 기독교 역시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허다한 목숨을 짓밟았다. 지난 2천 년간 교회들이 행한 용서나 평화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너무나 달랐다.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굶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풍족하다면, 풍족한 사람이 굶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념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영인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이념적으로 무장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이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나답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을 받고, 누리라고 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노예가 되어야 한다. 빛을 갚지 못하면 더더욱 비천한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갚으라고 강요해서야 되겠는가? 교회에서 형제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방관하고 있을 수는 있지 않은가? 이념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이 심히 상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길을 내버리고 사람의 길로 되돌아 갈 수는 있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 즉 돈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도로 받을 요량이 애초부터 없이 그냥 주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이다. 적어도 누가복음의 평화를 가지고는, '우주적 평화'나 '내 마음의 평화'나 하는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평화놀이는 할 수 없다.

우리 시대에도 평화의 문제는 절실하다. 그러나, 어떻게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담으로 내놓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것이다. 성령을 받고, 누가복음 6장 35절이 전하는 존재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이라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초등부의 가을 나들이

소식가족 카라 이희영

뉴스에 단풍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보여 주는 아름다운 영상이 나오면 누구나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가을, 10월의 마지막 날에 초등부는 전주로 반별 가을 여행을 떠났다. '1.75'는 기차로, '밥'과 '터보'는 고속버스로.

여행의 재미는 일단 먹는 것부터 시작이다. 1.75는 기차 여행답게 미리 준비한 김밥, 굴 등의 간식과 기차 안에 있는 카페에서의 군것질, 고속버스 팀은 휴게소의 떡볶이 등으로 각각의 재미를 누리며 전주에 도착했다.

전주 하면 한옥 마을이 대표적으로 떠오른다. 결국 모두 한옥 마을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각 반별로 덕진 공원, 경기전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계절이 가을 문턱에서 주춤거리는가 싶더니 어느새 겨울 문턱에 다다른 것처럼 쌀쌀한 날씨였지만 하늘이 맑고, 단풍이 고와서 고도의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었다. 한옥 마을에서의 길거리 음식 등을 즐기고, 카페에서 피곤한 다리를 잠시 쉬고, 저녁은 각 반별로 맛집을 찾아 갈비, 떡갈비와 냉면, 육회 등을 즐기고 찜질방에 모였다. 이 곳에서 다같이 먼지를 털어내고 뽀얀 얼굴로 드디어 새누리교회를 찾았다.

여행지에 친척집이 있는 것처럼 신나는 일은 없다. 밤 10시에 새누리교회에 도착했는데도 마치 큰 집 조카들이 놀러 온 것처럼 목사님, 전도사님 등 많은 분들이 우

리를 반겨 주셨다. 이미 따뜻하게 불 땀 방에 잠자리를 챙겨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보살펴 주셨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여름님이 너무 반가웠다.

다음날 아침,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당으로 갔더니 교우들이 우리를 얼싸안고 반가와 해 주셨다. 초등부 선생님들이 수련회에서 돌봐 주었던 어린이들이 형들을 반가와 했고, 홈스테이와 수련회로 친해진 교우들과 안부를 나누느라 친척집에 놀러온 북적거림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초등부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지만 새누리교회 예배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새누리교회의 예배 예전은 우리 교회의 예전과 거의 같다. 양진규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조익표 목사님의 설교만큼 길다는 것까지.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의젓하게 앉아있던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그랬더니 조금 양심에 걸리는 게 있었던지 "사실은 너무 졸려서 조금 잤어요."라는 솔직한 답변도 나왔다.

맛있게 차려 주신 점심을 먹고,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신 덕분에 편안히 시간에 맞게 서울로 올 수 있었다. 비교적 편안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올라오는 버스에서는 모두 잠에 골아 떨어졌다.

교회당에 모여 느낌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것 많이 먹어서 좋았어요.'가 제일 많았고, '모처럼 여자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놀아서 좋았어요.'란 얘기도 있었다.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없던 초등부 학생들은 '예배가 너무 길었어요.'했고, '목욕탕에서 놀았던 것이 재미있었어요.'라는 의견도 있었다.

모두 즐거운 가을 여행을 마쳤는데, 아뿔싸! 새누리교회 앞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못 했다. 셀카봉도 있었는데, 다음에 또 가야겠다.

새누리 교우 여러분, 저희들을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서울 나들이 하셔서 예가교회에 꼭 오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사랑가족

초록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가족모임으로 집을 공개하게 되어 설레고 기뻐다, 가족들을 섬기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겠다, 사랑가족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독일에서 온 섬김님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좋아하는 마음을 정성껏 드러내는 편지 쓰는 시간이 좋았다, 섬김님의 짧은 한국 방문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사귀을 가져서 좋았다, 초록님의 집들이 선물로 깔끔하고 소박한 선물을 골랐다, 토요일 가족행사로 초청 잔치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고마웠다, 장보기와 선물 준비에 애쓴 초록님, 장소준비 및 간식준비를 깔끔하게 한 뿌리님, 전날부터 샐러드 준비로 바빴던 진주님, 선물 포장 테이블 세팅 등 부지런히 움직인 씨앗님, 늦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누린 생명님까지 가족들 모두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정성으로 준비하는 일이 즐거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부활을 본다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부활을 본다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대면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화음가족

불꽃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신나님이 건강하고 즐겁게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지와 사태로 국거리를 준비하였다, 바쁜 와중에도 한 사람을 생각하며 즐거웠다, 화음님을 좋아하여 화음님이 피곤할 때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달콤한 간식을 선물하였다, 큰열매님에게 카드를 쓰고 스카프를 선물로 보냈다, 시원님을 좋아해서 시원님이 이른 아침에 운전하고 나올 때 손이 시리지 않도록 장갑을 선물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려면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사건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해하고

느끼겠다, 구름(장필)의 생일을 축하하겠다, 늘빛님과 샘물님께 감사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포도가족

새롬님 집에서 조영희 목사님과 함께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새롬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브로치를 만들어 드릴 계획을 세우고 일대일 만남 때 선물했다, 새롬님이 원석, 구슬들을 조합하여 골라 주셨는데 내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조합해주어 기뻐다, 남산을 걷다가 마리아님 생각을 하며 풍경사진을 찍어 감사 메시지와 함께 전송했고, 샤브샤브 소스를 만들어 선물했다, 한 주간 마리아님 생각을 많이 하니 마리아님이 더 좋아짐을 느꼈고, 일대일 만남도 더 즐거웠다, 모퉁이돌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자고 정했는데 약속시간에 늦었지만 준비한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반찬을 선물하며 모퉁이돌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며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이다, 좋은 것을 보기 위해 좋은 생

각을 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사로의 부활처럼 생각했었다, 부활은 깨달음의 사건이다,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나에게 나타남을 느낄 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라’는 말씀에 집중하여 살겠다, 숨(최용우)님에게 기프트콘을 선물하고, 제 시간에 예배에 오도록 독려하겠다, 명화(이정우)님에게 선물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드림가족

은석님 집에서 4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섬김님이 돌아와 살 집을 함께 찾아보고, 진주님과 섬김님을 초대해서 즐거운 사귀을 가졌다, 감사기도문을 준비하면서 5주 동안 기쁨과 감사로 잘 살아오게 된 것을 가족들에게 감사했다, 6주기를 희망하는 문자를 하며 한 주간 가족들과 사귀을 하였다, 마지막 주기를 잘 마무리하여 행복한 열매를 많이 나누기를 소망했다, 6주기에는 스토리와 캐릭터에 집중해서 살아보는 것과 호흡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매일 소망님의 격려 문자가 큰 힘이 되었다, 주일에 죄의 고백과 사

전 화해 활동을 해서 좋았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임을 알고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 새 출발을 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깨달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내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으로 형제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하라는 삶이고 성찬을 누리는 것이다, 매일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많은가족

나무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5주기 장소준비자로서 가족들에게 먹거리를 준비해주신 샘물님에게 감사를 전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온유님과 화해활동과 일대일 만남을 했다, 안경을 쓰는 온유님에게 지문 제거제를 선물했다, 샤론님에게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며 썬박지를 준비했다, 독립군님과 일대일 만

남을 하며,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과,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이 열려 알아본다는 것은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문제이다, 곧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일을 수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통하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달음이라 부른다,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수고하고 땀 흘린 노동의 결과를 교우들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이고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구현하는 일이다, 교우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겠다, 사랑님과 에스더님에게 선물하겠다, 섬김님에게 식사대접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소식가족

카라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희은님이 이사한다는 소식에 두껍고 쓰기 좋은 물티슈 한 박스를 선물 했다, 마르다님에게 선물할 신개념 종이세제를 발견하여 주문했다, 마르다님이 있어서 소식가족이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문자로 표현했다, 마르다님이 더욱 좋아졌다, 카라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감사

의 말과 선물을 전하며 카라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무척 반가운 시간이었다, 유랑님의 권면에 집중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좋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고, 가족 아카펠라 연습시간에 자일리톨 껌을 선물했다, 유랑님과 함께하는 삶에 더욱더 감사함을 느낀 한 주였다, 여행을 하면서 가족 모두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카톡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들과 같이 하는 것 같아 기뻐다, 가족들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바울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깨달음이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함으로 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삶을 살겠다, 내가 노동한 결과를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주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하며 호흡기도로 자존감을 갖고 생명을 구하는 한 주를 살아야겠다, 섬김님에게 선물하겠다, 추수감사절 잔치를 준비한 포도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겠다, 예가락 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다, 하마(양동엽)님과 요셉(홍진표)님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성실가족

광야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

는 “빌립님과 짧은 만남, 깊은 사귀를 가졌다, 호흡기도로 사랑하는 몸을 만들어 세상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가족 안에서 빌립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족 섬기기와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 광야님에게 감사하며 선물을 할 생각을 했다, 키친타올이 가족모임을 하면서 요긴하게 사용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선물했다, 기분이 좋다, 찬미님에게 핸드크림을 선물하기로 했다, 물을 많이 만지고 또 날씨가 추워져서 보습제가 필요할 것 같아 선물했다, 항상 열심히 일하며 가족과 교우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찬미님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건은 존재의 변화, 곧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될 때이다, 사랑하는 존재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의 삶을 소원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내 옆의 예수님을 알아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의 몸을 통해 구현하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교우들을 더 사랑하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가족모임, 스토리로 날다

이 코너는 3년째 가족모임에서 스토리와 캐릭터로 살면서 자신의 성격강점을 강화시킴으로써 더욱 재미있어진 가족모임으로 사는 삶을 나누고자 만들었습니다. 스토리와 캐릭터로 산 이야기와 함께, 산돌 900호에서 처음 선보인 포토샵으로 교우들의 사진을 꾸몄으니 읽는 재미와 보는 재미, 또 사는 재미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림가족

이벤트방: 놀이로 사귀자

텃밭 주변을 정리하고 가을향기를 맡으며 국화를 심고 호빗족 비긴스들과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카드, 선물로 한가위 보름달 만큼 풍성하고 넉넉한 사귀를 가졌다. 하숙생들 최초의 호홉기도 6.0을 자축하며 미스 권에스터 어머니가 보내주신 생강으로 생강차와 청을 만들어 서로 좋아하며 살아온 삶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다. 풍성한 계절 만큼이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질수록 서로를 받아 들이고 이해하고 좋아하는 시간이 쌓여간다.

소식가족

흙의 대륙 아르카디아

아르토스들은 제 5주기 흙의 대륙 아르카디아를 탐험하면서 아르카디아의 귀한 새 토조요리로 기력을 회복하고 아르카디아의 옛 왕궁터와 그림 유적을 탐험하였다. 흙에 묻혀 있던 왕궁터의 테라스를 발굴해서 복원하고 갈비와 마카로니 음식으로 아르카디아인들을 기쁘게 했다. 아르카디아의 차세대 지도자 '작은 용'을 초청하여 새로운 아르카디아에 전해 오는 전설을 듣고 실마리를 찾아서 지금까지 획득했던 4가지 원소를 사용하여 아르카디아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

화음가족

뛰노는 기쁨

신나 비긴스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세상 밖 친구 두 명을 초청했다. 한가운 비긴스는 참 좋다고 칭찬격려하며 사람들을 사귀는 즐거움을 누렸다. 시원 비긴스는 계획대로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SD도 2번 참여하였고 사귀와 여가로 가족들과의 남산산책이 좋았다. 화음 비긴스는 반갑게 인사하기와 101번 초청이 목표였는데, 예전에 비해 인사할 때 목소리도 커지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아 좋았다. 푸른 비긴스는 직장에서 관장, 직원들과 동해바다를 여행하며 더 깊은 사귀를 가졌고, 집으로 관장들을 초청하여 그 동안 배웠던 중국차와 문화를 소개하고, 식사대접을 하며, 사귀를 가졌다. 불꽃 비긴스는 늘 유쾌하게 사는 호빗족답게 춤과 노래로 즐거운 생활을 누렸다.

사랑가족

집구경 온다고? 잔치 준비해야겠네

1년간 예가교회와 사랑가족의 초청에 방문해준 교회 밖의 친구들을 불러 함께 식사하고 사귀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초청자를 선별하여 사귀고, 문자하고 만나는 일을 하였다. 그 결과 11월 7일 7명이 참여하는 잔치로 고래 박지현님과 모란 신연경님이 힐링하우스의 가족이 되었다.

성실가족

가을왕국에서의 사귀

재미있는 손오공이 초인들에게 해물탕을 대접하여 모든 초인들이 믿음의 사귀으로 하나됨을 누렸고, 팔팔한 간달프는 호홉기도에 모범을 보이며 믿음의 말로 격려하였으며, 친절한 소머즈는 다양한 먹거리를 대접하여 즐거움을 누렸다. 성실한 스파이터는 초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밝고 당당하게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행복한 배트맨은 초인들의 모임장소와 식사에 정성을 기울여 기쁨을 누렸으며, 웃기는 맥가이버는 멋진 겨울눈꽃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맑은가족

아폴론의 절친 포세이돈 구출작전

샤론 헤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매직지팡이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쁨을 누렸으며, 샘물 아폴론은 신들을 섬기며 일대일로 모두 만나 사랑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렸다. 늘 빛 헤스디아는 아폴론을 도와 슈퍼보비를 만들어 웰빙 선물까지 나누었다. 독립군 마키나는 성실히 공부하며, 제 2의 도약을 만들었으며, 나무 하하는 지친 신들의 체력과 공격력을 상승시키고자, 웃음바이러스를 만들어 게임 개발에 성공하였다. 온유 아테나는 지금 여기 이순간을 기쁘게 살았다. 카이로스 맑은은 신성을 강하게 하는 신선초를 구해, 아침인사를 하며 신들을 먹였다.

포도가족

포도열매를 기쁘게 수확하자

포도가족 5주기의 스토리는 '환상적인 여행을 마친 스머프들은 그 동안 기록한 수정구슬들을 돌려보며 추억을 되새기고, 포도열매를 수확하여 여행 중 사귄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하여 축제를 열기로 한다'이다.

포도가족은 4주기 수련회를 통해 가족의 결속이 다져진 것을 지속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5주기에는 사립의 시간을 늘렸다. 큰 마을 축제음식 준비로 모여 음식을 만든 후 사립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불평하던 것을 돌이켜 고백하였다. 예술의 전당 음악분수를 찾아가 차와 저녁식사를 하며 늦은 시간까지 서로에게 격려의 시간을 갖고, 모임식사를 준비하는 주렁 스머프를 찾아가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기쁨을 수확하는 5주기가 되었다.

기쁨이 스머파트 새롭은 먼 여행에서 돌아와 가족들을 더 좋아하기 위해 맛난 음식으로 섬길 계획을 세웠다. 매주 가족모임의 사랑의 식탁에 주렁 스머프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고, 주렁 스머프에게 반찬을, 흥반장 스머프에게는 고구마를, 익살이 스머프에게 야채쥬스를 선물하고, 해해 스머프, 지금보라 스머프에게는 식사대접을 하며 섬기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주기에 호홉마법을 통해 스머프들을 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부지런히 움직인 스머파트는 참 고마운 한 주기를 보냈다.

포그니 스머프 마리아는 마법의 음료와 간식을 만들어 스머프들에게 선물하고, 이웃마을 요정을 초청했을 때 일찍부터 와서 주렁 스머프를 도와 새 레시피로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이웃 요정들에게도 선물을 하였다. 아침명상을 하며 연구해서 만든 마법서와 나누고 싶은 느낌을 메신저를 통해 보

내주어 신비한 나날을 스머프들과 같이 누렸다.

주렁 스머프 달빛은 자기집을 개방하여 모임을 갖고 포도열매를 수확하는 스머프들에게 매주 음식을 연구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간식을 제공하여, 풍성한 먹거리로 스머프들을 기쁘게 하였다. 사진 찍기를 열심히 했고 사진 올리기도 더 분발하고 있다.

익살이 스머프 아모는 메시지를 통하여 포도열매 수확이 한창인 스머프들에게 재미있는 글이나 동영상으로 즐거움을 주었고, 지난 여름, 여행의 추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포도원에 활력을 더했다. 매주 세운 계획대로 실천하진 못했지만, 재미있는 글을 보면 스머프들이 생각나서 껌싸게 퍼 나르며 즐거웠다.

지금보라 스머프 보라는 여행으로 바빠 자주 스머프들과 만나지 못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여행을 돌아온 다음에는 스머프들을 만나기에 힘썼다. 스머프들과 만날 때는

지금 여기에서 스머프들을 좋아하고 잘 하는 일에만 집중했다.

해해 스머프 해는 스머프들과의 만남에 간식을 가져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 모임진행을 부드럽게 하였고, 이웃마을 사랑요정들과의 만남을 시점으로 새롭게 연구한 아이템인 브로치를 스머프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했다. 같이 음악분수를 보며 차와 식사와 함께 가을을 누리고 성찬준비를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좋았다.

흥반장 스머프 모퉁이들은 스머프 모임에 참석하기에 힘쓰며 천식에 좋은 밤꿀을 선물하고, 고향에서 보내준 밀반찬을 스머프 식사에 제공하였고, 이웃마을 요정을 초청할 때는 고향에서 보내준 LA갈비를 제공하여 먹는 즐거움을 나눴다. 추수감사절 노래와 성탄노래준비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예가 소식 & 공지

1. 지금은 창조절기입니다. 창조절기로 지내는 동안 매일 주기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형제를 향하여 '참 좋다'고 선언하며, 좋아하고 잘하는 삶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2.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삶에 대해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주간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3. 주일 연경반은 저녁 7시에 친교실에 있으며, 오늘 모임이 올 해의 마지막 모임입니다. 2016년 연경반은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연경반 강의는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4. STS(Searching The Scriptures) 하반기 강의는 산상수훈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되어 있으니,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목요기도회는 이번 주 휴회합니다.

6. 2015년 크리스마스는 한 해 동안 사귀를 가진 이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갖습니다. 칸타타예배는 가족모임과 부서별 발표회로 대체하여 갖습니다. 이 날 발표를 위한

준비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만찬을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잔치와 선물나누기, 0시 예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7. 호흡기도를 매일 합시다. 호흡기도는 주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호흡기도에 힘써서 예수님이 누리신 자존감을 가지고, 통 크고 당당하고 밝은 삶,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시다.

8.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역자들은 2016년 준비를 위한 기도회에 들어갑니다. 급한 연락이 필요한 분은 장영진 목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맑은, 드림님입니다. 예배위원은 한 주간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추수감사의 식탁으로, 포도가죽이 메인을 맡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접합니다. 11월 봉헌위원은 바다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마태복음서 25장 ~마태복음서 28장
화	마가복음서 1장 ~마가복음서 5장
수	마가복음서 6장 ~마가복음서 10장
목	마가복음서 11장 ~마가복음서 14장
금	마가복음서 15장 ~누가복음서 3장
토	누가복음서 4장 ~누가복음서 8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